

2025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27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유채원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학번	2453019	저자명	밀란 쿤데라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철학적 대비가 제목에서부터 강하게 다가왔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문학적으로 탐구한 이 소설이 삶에 대한 나의 시각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토마시,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의 관계와 내면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소설이다. 작가는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을 빌려, 한 번뿐인 삶의 가벼움과 그에 반하는 무게를 대비한다. 토마시는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결국 테레사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게 된다. 인간의 선택과 그로 인한 책임, 자유와 구속, 사랑과 배신, 현실과 이상이라는 이중구조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게가 없다면 삶은 공허하고, 무게가 있기에 삶은 견딜 수 없다”는 작가의 역설적 시선이었다. 나는 종종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꿈꿔왔지만, 이 소설은 그 ‘가벼움’이 얼마나 외롭고 방향을 잃기 쉬운 상태인지를 보여주었다. 테레사가 감당한 삶의 무게와 토마시가 느끼는 무의미한 자유의 가벼움은 결국 교차되어, 인간은 무게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특히 테레사의 꿈 속 장면들과 토마시의 내면 독백은 인간 심리의 깊은 층위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감을 이끌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과 철학적 물음을 촘촘히 담아낸 수작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삶의 본질, 자유와 책임,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철학적 질문이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지적 자극과 감정적 울림을 함께 준다.

[서평 첨삭 및 제출 방법]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내외국인 표현능력상담](#) 프로그램 신청 ▶ 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 서평 본문 및 첨삭과정(상담 신청 캡처, 첨삭메일 등)을 PDF파일 1개로 합쳐 E-CLASS 커뮤니티 제출